

위기의 현대건설·추격자 흥국생명, 1위 싸움 계속 된다

현대건설, '난적' 한국도로공사·KGC인삼공사 차례로 대결
1위 노리는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GS칼텍스와 맞대결

프로배구 여자부의 치열한 1위 싸움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월13일 현재 현대건설(21승 6패·승점 61)과 흥국생명(20승 7패·승점 60)은 승점 1점 차이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개막 15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야스민이 지난해 12월 중순 허리 부상으로 계속 결장하면서 흥국생명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리베로 김연진이 발목 부상을 당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웃사이드 히터 황민경 역시 허리가 좋지 않다.
현대건설은 급히 터키리그에서 뛰고 있는 몬타뇨를 대체선수로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최하위 페퍼

저축은행에게 덜미를 잡혔다. 몬타뇨는 V-리그에 적응하기 위해 나온 경기에서 13득점에 그쳤고, 공격성공률은 37.5%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현대건설에게 매 경기 집중력이 필요하다.
현대건설은 14일 홈코트인 수원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선다. 몬타뇨와 팀의 중심인 양효진의 선전이 필요한 때이다. 현대건설은 분위기를 바꾸지 못할 경우, 1위 수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도로공사는 공격력이 강하고, 4라운드 대결에서 현대건설을 제압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17일 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 엘리자베트가 이끄는 KGC인삼공사와의 맞



대결을 펼친다.
1위 도약을 눈앞에 둔 흥국생명의 분위기는 좋다. 흥국생명은 지난 11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이겼으면,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은행 산타나와 표승주를 막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다. 이번 시즌 9경기가 남아 있고, 현대건설과의 맞대결도 한 차례 예정돼 있다.
흥국생명은 엘레나와 김연경을 필두로 전열을 재정비한다.
흥국생명은 오는 15일 페퍼저축은행과 상대하고, 19일 GS칼텍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페퍼저축은행은 현대건설전에서 끈끈한 저력을 보여줘 상승세에 있다. 흥국생명은 페퍼저축은행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를 봉쇄하는 게 관건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시즌 흥국생명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 세 차례나 폴 세트 점전을 벌였고, 상대전적에서 2승 2패를 기록했다.



18세 김나영, 탁구 국가대표 핵심 전지희 꺾었다
소속팀 포스코인터내셔널, 미래에셋증권 3-1 격파

탁구 기대주 김나영(18)이 탁구 국가대표팀 주축인 전지희(31)를 꺾었다.
김나영 소속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2일 수원 탁구전용경기장 스튜디오T(광교체육관)에서 열린 2023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KTTL) 여자 코리아리그 경기에서 미래에셋증권을 매치스코어 3-1로 제압했다.
포스코용 프로리그 출범 이후 두 시즌에 걸쳐 미래에셋증권에 8전 전승을 거두며 천적 관계를 확인했다. 누적승점 32(9승4패)를 만든 포스코는 2위 삼성생명(29점 8승5패)과 격차를 3점차로 벌리며 정규리그 우승에 다가갔다.
1매치 말년니 대결에서 포스코 양하은이 유은총을 2-0(11-6 14-12)로 잡아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2매치에서 김나영이 전지희를 2-1(11-7 8-11 12-10)로 잡아 파란을 일으켰다.
김나영은 까다로운 서비스와 백핸드 공격으로 1게임(세트)을 잡았지만 전지희의 노련한 플레이에 2게임을 내줬다. 김나영은 3게임에서도 7-10까지 뒤지며 패배 직전에 몰렸지만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며 5연속 득점으로 대어를 낚았다.
김나영은 3매치 복식에서도 유한나와 조를 이뤄 상대 윤효빈-심현주 조를 2-0으로 눌렀다. 4매치 에이스 대결에서는 전지희가 양하은을 2-1(8-11 13-11 11-6)로 꺾었다.
뉴스스

전남 드래곤즈, '최전방 공격수' 로빈 시모비치 영입으로 공격력 강화

201cm 98kg 장신 볼구 스피드·볼 연계 능력 소유

전남 드래곤즈는 최전방 공격수 로빈 시모비치를 영입하여 공격력을 강화했다.
시모비치는 201cm 98kg의 장신임에도 스피드와 볼 연계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득점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다.
2011년 IFK Klagshamn(스웨덴)에서 프로 데뷔를 한 시모비치는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에서 활약했으며 프로통산 289경기 출전, 107득점, 29도움을 기록 중이다.
특히 일본 J리그 나고야 그램퍼스(16~17)와 오미야 아르디자(18~19)에서 122경기

출전, 43득점, 16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무대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전남에 입단하게된 시모비치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축구에 오랜 역사를 가진 전남에 입단하게 되어 영광이며 전남 드래곤즈가 제자리인 K리그1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공격포인트를 많이 올리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한 시모비치는 곧바로 합류하여 전남 기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이재성 골 행진 비결은 조기 교체... "또 후반 교체될까봐"

독일 마인츠서 최근 4경기 4골
"경기 시작 1초부터 쏟아부으라 지시"
"더 빨리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노력"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31)이 유럽 빅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는 등 행진을 벌이고 있다. 골 행진의 비결은 다음 아닌 조기 교체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었다.
이재성은 지난 11일(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의 MEWA 아레나에서 열린 아우크스부르크와의 2022~2023 분데스리가 20라운드에서 2골을 터뜨리며 마인츠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이재성은 전반 21분 0-0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2-1로 추격 당하던 후반 7분 썬기골을 넣었다.
이로써 이재성은 시즌 6호골 고지를 밟았다. 특히 최근 골 감각이 살아났다. 지난달 25일 도르트문트전, 28일 보훔전에 이어 이번 아우크스부르크전까지 4경기에서 4골이 터졌다.
이재성은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 처음 진출한 지난 2021~2022시즌 기록했던 4골(3도움)을 이미 넘어섰다.
이재성은 이번 아우크스부르크전 활약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6일 블로그에서 "다음 경기 상대는 아우크스부르크. 우리 홈에서 열린다. 하루빨리 홈경기 세 번째 승리를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45초 만에 골을 넣을 줄 상상



도 못했듯이, 언젠가 또 놀라운 장면을 여러번 목격할 수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성은 골 행진 비결도 공개했다. 이재성은 도르트문트전에서 전반 1분32초 코너킥 공격 때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재성은 보훔전에서도 경기 시작 후 43초 만에 골을 넣었다.
이재성은 이에 대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지금 생각해봐도 놀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재성은 스벤손 감독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보 스벤손 감독님이 늘 선수들

에게 강조하는 게 있다. 경기 시작 1초부터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하신다. 보통 감독님들은 경기 시작 첫 5분, 끝까지 전 5분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스벤손 감독님은 1초부터 쏟아부으라"고 설명했다.
이재성은 "나는 최근에 체력 관리로 후반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교체가 자주 됐다. 후반전에 교체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빨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며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뉴스스

시즌 첫 대회 2위...우상혁 "동기부여, 승부욕 생겨"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서 은메달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웅인시절)이 올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놓친 후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우상혁은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4를 뛰어 일본의 아카마쓰 료이치(2m2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우상혁에게는 아쉬운 성적이다.
우상혁의 라이벌이자 남자 높이뛰기 현역 최강으로 꼽히는 무타즈 에사 바르심(카타르)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바르심은 남자 높이뛰기 역대 2위 실외 기록(2m43) 보유자로, 2017년 런던 대회부터 지난해 유진 대회까지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했다.
바르심이 나서지 않은 대회에서 실내 개인 최고 기록이 2m36인 우상혁은 단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우상혁은 지난 11일 열린 예선에서 2m14를 1차 시기에 넘고 단 한 번의 점프로 결선 진출을 확정하며 우승 후보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는 결선에서 2m10을 패스하고 2m15, 2m20, 2m24를 모두 1차 시기에 가볍게 넘었다.
2m24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선수는 우



상혁과 아카마쓰 뿐이었다.
우상혁은 2m28을 1차 시기에 실패했다. 아카마쓰가 2차 시기에 2m28을 넘자 우상혁은 우승을 노리고자 바를 2m30으로 올렸다. 하지만 두 번 연속 실패하면서 2위로 경기를 마쳤다.
경기 후 우상혁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시즌 첫 대회를 대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준비를 잘하는 것과 경기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목표했던 우승은 아니지만 부상없이 경기를 마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스

임성재 "PGA 톱 랭커들과 경쟁해 상위권 자신감 얻어"

PGA 투어 피닉스오픈서 공동 6위

임성재(25)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 오픈(총상금 2000만 달러·우승상금 360만 달러)에서 공동 6위로 마무리했다.
임성재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스포츠필드의 TPC 스퀘어 스타디움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쳐 2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4타를 친 임성재는 공

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이번 주 톱10으로 기본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마지막 홀 보기가 어렵긴 하지만 다음주도 큰 대회가 있으니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잘 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팬들도 재미있게 경기를 봤을 것 같다. 이렇게 세계랭킹 상위권이 많은 선수들과 경쟁해서 톱10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또 한 번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주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임성재는 "다음 주에 큰 대회가 열린다. 항상 매 대회마다 코스 컨디션이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다짐했다.
세계랭킹 2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마지막 날 6타를 몰아쳐 최종합계 19언더파 265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셰플러는 개인 통산 5번째 PGA 투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니 테일러(캐나다)는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쳐 준우승을 차지했고, 세계랭킹 3위 윤람스페인(스페인)은 14언더파 270타로 3위에 올랐다.
임성재를 제외하면 한국 선수 중 톱20에 진입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